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식을 통한 재난대비활동의 효과성 분석: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 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An Analysis on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of Preparedness Activities through the Survey on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Cho, Seong

Center for Disaster & Safety Resear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disaster preparedness activities on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and to structurally identify the role of reinforcement of community disaster as an intervention effect. **Methods** : This study uses the SPSS 21.0 and AMOS 21.0 statistical programs to identify structural equation models. **Conclusion** : For the preparedness activities, the planning, resource allocation, disaster education, training, and cooperation system were used as the measurement index and the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was surveyed about economic, institutional, human and social capital. Disaster preparedness affects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has been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Key Words : Disaster Preparedness, Local Government Disaster Preparedness Activities,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Seong

Center for Disaster & Safety Research, 73-26, Yeonsuwon-gil,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82-41-840-1230 Fax: +82-41-840-1199 E-mail: cksaint@cni.re.kr

* 2018년 충남연구원 기본과제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투고일: 2018년 12월 28일 심사요리일: 2019년 0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9년 02월 15일

I. 서론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단계의 시간적 흐름에서 어느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고, 각 단계는 분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발생의 전조를 감지하는 능력, 이를 통해 대응에 이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를 위한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하여 지역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Cutter et al., 2008: 598-606). 재난관리에서 대비는 재난이나 위험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상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Haddow et al., 2014: 181). 그러나 대비는 단순한 준비상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재난관리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정부와 민간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에서 재난의 결과로서 대응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대비가 재난이후의 지역사회가 생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대비 활동이 재난관리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고, 특히 지역의 재난 레질리언스가 대비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 재난대비 활동

(1) 계획수립

계획수립은 지역사회 취약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 재난관리 지원협약, 관할 지역 내 상호지원, 민간기업과 지원공급업체와의 계약 등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외부의 자원도 포함되어야 한다(Haddow et al., 2014).

(2) 장비(자원) 동원

재난관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에는 3~4가지의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대응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같은 조직 내에서도 서로 다른 조직의 대응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장비, 대응 담당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한 건물이나 위험한 침수 지역에 들어가거나 생명의 징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수색 및 구조 장비 등이 포함된다(Haddow et al., 2014: 1-442).

(3) 교육

재난 대응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전통적인 재난관련 업무담당자뿐 아니라 재난과 관련해 중요하고도 구

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출직 관리, 재난 발생 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의 기업과 비정부 기구, 그리고 자신의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을 도와야 하는 개인까지 교육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Haddow et al., 2014: 1-442).

(4) 훈련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의지할 만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매우 적으므로, 대비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훈련이다(Haddow et al., 2014: 1-442). 훈련은 반복 연습의 다른 표현으로서, 집중훈련, 도상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을 포함한 최적화된 훈련을 통해 계획 수립과 교육, 조직 또는 장비의 부족이나 실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대응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협조체계

Raelin(1980, 1982: 243-244)은 조직 간 협력의 토대로서 3가지의 자원교환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자발적 교환, 권한의 증속으로부터 결과하는 교환, 법제도적으로 부과된 상호작용 등이 그것이다. 상호의존성은 조직 간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존재여부는 조직 간 관계(협력이나 조정)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상호의존의 유형은 각 조직이 채택하는 조직 간 관계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Alexander, 1995: 31).

2.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

1) 개념

레질리언스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재난을 가능한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더 발전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재난관리 조직의 시스템 작동과정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있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취해야 할 계획, 대비, 위험을 저감시키는 활동이나 재난이 발생한 후의 다양한 대응, 복구 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Murphy, 2007: 297-315; Kim et al., 2012: 29-29). 이러한 측면에서 예측불가능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레질리언스를 가진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Kim et al., 2012: 29-29).

2) 재난 레질리언스의 측정

(1) 사회적 자본

재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외부 환경이 가져오는 충격이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회적 자본을 보는 견해가 많다(Stanton-Salazar, 2001: 1-332). 그러나 사회적 자본을 한 사회의 재난에 대한 레질리언

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하면, 우리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규범)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레질리언스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살핌을 받고, 필요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상호 작용이 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복구계획 과정을 통하여 재난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Norris et al., 2008: 138).

(2) 경제적 자본

경제적 자본은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 및 다양성, 공평한 자원의 분배를 총괄하는 경제적 역량을 의미한다. 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에 공헌하는 개인의 소득이나 부동산, 지역사회의 재정자원 및 재정건전성, 고용, 투자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Norris et al., 2008: 127-150; Cutter et al., 2010: 1-51). 재난으로부터 지역의 재정자원이 안정적이고 건전할 때 레질리언스가 향상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에 접근이 쉽고,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 수준은 주로 소득이나 세원의 다양성, 안정성과 관련되며, 지역의 소득 불평등과도 관련된다(Yang, 2014: 149).

(3) 인적자본

인적 자본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습득된 역량을 의미한다(Mayunga, 2007: 16). 재난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생산가능 인구가 많을수록 레질리언스 구축에 역량이 뛰어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재난 레질리언스와 관계된 연구에서는 고령인구, 장애 인구, 이주민 비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인다(Cutter et al., 2010: 1-51). 또한 주민의 교육수준과 주민의 지식, 기술, 다양한 경험, 건강함 등은 재난의 대처, 적응, 복구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난 발생 이후 완충재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경제에 대한 붕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Cutter et al., 2008: 598-606; Mayunga, 2007: 16).

(4) 제도적 자본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의 생계나 손실위험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주민의 재난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재난관리 조직, 재난 관리자 등과 관련된 사항이 제도적 자본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Heo, 2017: 68). 지역사회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향을 예측하여 사전 예방 차원의 재난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Gundersen, 2010: 425-439).

III.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비활동 정도가 재난관리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대비를 구성하는 계획수립, 자원확보, 교육, 훈련, 협조체계

는 각각 재난관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재난 레질리언스 정도는 재난관리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재난대비 활동이 재난관리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개 효과를 미칠 것을 보았다.

2. 조사설계

재난대비활동과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가 재난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재난대비 활동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충남지역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도청, 소방본부, 및 15개 시군에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 과정에서 특정 시, 군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인구 및 재난 담당 부서의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가운데 유효한 408개를 통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AMOS 21.0 통계 패키지를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연구모형의 요인과 측정변수에 맞게 가공하였다.

Table 1. Factors and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Questions	Cronbach's Alpha
Disaster Preparedness	15	.927
Economic Capital	3	.677
Human Capital	3	.791
Institutional Capital	3	.821
Social Capital	3	.831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6	.931

IV. 분석 결과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먼저 재난대비를 살펴보면, 평균이 3.59, 표준편차가 .630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재난레질리언스에서 경제적 자본은 평균이 3.21, 표준편차가 .655으로, 인적자본은 평균이 3.23, 표준편차가 .739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자본은 평균이 3.76, 표준편차가 .766으로, 사회적자본은 평균이 3.48, 표준편차가 .772으로 나타났다. 효과성을 살펴보면, 평균이 3.73, 표준편차가 .697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응답자로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적합도

Table 2. Structure Model Fit Indices

χ^2	<i>df</i>	<i>p</i>	<i>TLI</i>	<i>CFI</i>	<i>RMSEA</i>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883.858	.309	.000	.909	.920	.068	.062	.073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표준화 경로계수(β)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 상관관계 제곱값은 제도적과 재난관리 효과성은 0.587로 나타났는데,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모두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R^2
Disaster Preparedness	<-->	Economic Capital		0.438
Disaster Preparedness	<-->	Human Capital		0.384
Disaster Preparedness	<-->	Institutional Capital		0.551
Disaster Preparedness	<-->	Social Capital		0.520
Disaster Preparedness	<-->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0.387
Economic Capital	<-->	Human Capital		0.448
Economic Capital	<-->	Institutional Capital		0.510
Economic Capital	<-->	Social Capital		0.365
Economic Capital	<-->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0.372
Human Capital	<-->	Institutional Capital		0.398
Human Capital	<-->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0.563
Human Capital	<-->	Social Capital		0.554
Institutional Capital	<-->	Social Capital		0.482
Institutional Capital	<-->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0.587
Social Capital	<-->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0.507

경로분석의 전체 결과에서 적합도를 살펴보면, RMR=0.033, GFI=.943, AGFI=0.903. NFI=0.906, RMSEA=0.056, CFI=0.944 그리고 CMIN/DF=2.285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경로분석

재난대비 활동과 경제적 자본 간에는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847로 t 값이 13.47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재난관리 효과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847이므로 재난대비 활동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경제적 자본은 0.847 증가하게 된다. 재난대비 활동과 인적 자본 간에는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812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2.05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812이므로 재난대비 활동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인적 자본은 0.812 증가하게 된다. 재난대비 활동과 사회적 자본에서는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77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2.57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770이므로 재난대비 활동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 자본은 0.770 증가하게 된다. 제도적 자본에 대해서는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77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1.72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776이므로 재난대비 활동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제도적 자본은 0.776 증가하게 된다. 재난관리 효과성과의 관계에서는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59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4.920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595이므로 재난대비 활동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재난관리 효과성은 0.595 증가하게 된다.

지역사회 재난레질리언스가 재난관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본과 재난관리 효과성간에는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2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2.236이고 유의확률이 0.02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290이므로 경제적 자본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재난관리 효과성은 0.290 증가하게 된다. 인적 자본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22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2.425이고 유의확률이 0.01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221이므로 인적 자본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재난관리 효과성은 0.221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240으로,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4.28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240이므로 사회적 자본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재난관리 효과성은 0.240 증가하게 된다. 제도적 자본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33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5.76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338이므로 제도적 자본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재난관리 효과성은 0.338 증가하게 된다.

3) 매개효과

Table 4. Mediation Analysi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saster Preparedness	Economic Capital	.835(.737~.924)** p=.001		.835(.737~.924)** p=.001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581(.204~.809)** p=.015	.240(.043~.634)** p=.019	.821(.766~.863)** p=.001
Economic Capital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288(.042~.677)** p=.024		.288(.042~.677)** p=.024
	Human Capital	.832(.772~.885)** p=.001		.832(.772~.885)** p=.001
Disaster Preparedness	Human Capital	.581(.204~.809)** p=.015	.173(.043~.634)** p=.019	.754(.665~.863)** p=.001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208(.002~.404)** p=.042		.208(.002~.404)** p=.042
Human Capital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726(.638~.796)** p=.001		.726(.638~.796)** p=.001
	Social Capital	.581(.204~.809)** p=.015	.180(.072~.708)** p=.001	.761(.666~.864)** p=.001
Disaster Preparedness	Social Capital	.248(.097~.381)** p=.001		.248(.097~.381)** p=.001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p<0.05, p<0.01**

매개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수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간접 그리고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부스트래핑은 2000번으로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비활동은 효과성에 대한 직접효과가 .581이고, 대비활동이 인적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173으로, 경제적 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160,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180, 제도적 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259 나타났다. 대비활동이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재난레질리언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 재난 대비 활동과 재난 레질리언스가 직접적으로 재난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는 대비활동의 효과성 강화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 향상이 재난관리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재난대비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의 재난 레

질리언스를 고려한 총체적 지역사회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인식했던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에서 적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 레질리언스를 높이는 인적·물적 자원과 그 네트워크의 강화가 중요하다(Norris et al., 2008)고 이해되어 왔다. 현재 인식수준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난 대비 활동의 수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높은 긍정을 보인데 비해 재난 충격완화를 위한 준비나 인력과 예산의 가외성 등의 재난 대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운영되고 있는 대비 활동에 대한 반성적 숙고와 더불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Kim, H. J., Jung, S. H., & Shin, J. D. (2012). A study on deriving facilities of safety management by fire vulnerability analysis.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29-29.
- Yang, G. G. (2014).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organization in gyeongsangnam-do. *Gyeongnam Development*, (133): 20-32.
- Hur, A. R. (2017). Disaster resilience in local government: Indicator design and influence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Alexander, A. J., Bandiera, G. W., & Mazurik, L. (2005). A multiphase disaster training exercise for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Opportunity knocks. *Academic Emergency Medicine*, 12(5), 404-409.
- Cutter, S. L., Barnes, L., Berry, M., Burton, C., Evans, E., Tate, E., & Webb, J. (2008). A placebased model for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8(4), 598-606.
- Cutter, S. L., Burton, C. G., & Emrich, C. T. (2010). Disaster resilience indicators for benchmarking baseline conditions. *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7(1), 1-51.
- Gunderson, L. H. (2000). Ecological resilience—in theory and application.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31(1), 425-439.
- Haddow, G., Bullock, J., & Coppola, D. P. (2014).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MA: Butterworth-Heinemann.
- Mayunga, J. S. (2007).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A capital-Based approach. *Summer Academy for Social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Building*, 1: 16.
- Murphy, B. L. (2007). Locating social capital in resilient community-level emergency management. *Natural Hazards*, 41(2), 297-315.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2), 127-150.
- Satterthwaite, D. (2011). *What role for low-income communities in urban areas in disaster risk reduction?*. Background Paper to the 2011 Global Assessment Report. Geneva: Disaster Risk Reduction.
- Stanton-Salazar, R. D. (2001). *Manufacturing hope and despair: The school and kin support networks of U.S.-Mexican Yout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국문초록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식을 통한 재난대비활동의 효과성 분석: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 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대비 활동이 재난관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고, 매개효과로서 지역사회 재난레질리언스 강화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비활동에는 계획수립, 자원확보, 재난교육, 훈련, 협조체계를 측정지표로 하였고,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로는 경제적, 제도적, 인적, 사회적 자본을 조사하였다. 충남지역 공무원의 인식을 토대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 AMOS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결론 :** 늘어나는 재난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지방정부 차원의 활동과 더불어 최근 지역사회의 재난 레질리언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재난발생의 최전선이며, 대응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난대비활동을 통하여 지역이 가진 모든자원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체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재난대비활동은 재난관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는 재난관리 효과에 부분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재난대비, 지방정부 재난대비 활동,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 구조방정식 모델